

하나로 한마음으로



1학년주임 유 정 수

인항고등학교라는 새 생명이 태어난 지도 엇그제 같은 데 벌써 다섯번 째 식구를 맞을 때가 거의 다 됐으니, 세월이란 참 덧없이 흐르는가 보다. 처음 인항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듣고 인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때 많은 갈등을 느꼈다. 한해 두해 거듭해 생활해 온 지가 벌써 십년 가까이 된 먼저 학교에 눌러 있으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야 할지, 아니면 마치 태초의 신비처럼 아무것도 그려진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 들어야 할지, 내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확실히 이끌리는 특색이 본교에는 있었다. 사실 교사가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느 학교이든 큰 상관은 없으리라. 그러나 다른 학교와는 분명히 다른 그것이 있었기에 나의 망설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인항고등학교라는 교명에서 말해주듯이 인천항운 노동조합에서 설립한 학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끌었다.

학교를 세워서 경영해 보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럿이 힘을 모아 세운 학교라는 것이 특색이 있었다. 담배 한 개비, 막걸리 한 잔을 아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른 학교에서 보다는 더 큰 보람을 느낄 확신이 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라도 잡초처럼 꾀꼬리 살아 남에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저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가벼운 흥분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개교 초기에 부임하신 선생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다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황량한 벌판에서 한창 공사중인 학교건물을 보고나니 암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까? 아무 전례도 전통도 없기에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

을 다져봤지만 선뜻 자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새 직원들을 상면하고 입학 준비부터 하나씩 일을 풀어나가자 모든 것이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초임으로 본교에 부임하신 선생님들의 의욕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였다.

처음 하는 일이라 낯설고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부딪히는 저력에는 태산도 떠올 정도의 괴력이 있었다.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에 비해 내 자신의 모습은 먼저 학교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모습을 단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스무 명도 안되는 적은 가족이었지만 문자 그대로 가족같은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 일사천리로 행해지고 있었다.

눈 코 뜰새 없이, 정확히 말하자면, 어리둥절한 상태로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았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 첫 해가 제일 기억에 남는 듯 하다. 식당이 없어서 교무실 옆 빈교실에서 음식을 날라다 식사하던 일, 공사 현장에서나 먹어볼 함바집 식당, 지리산에서의 연수 등 어느새 한 해가 지나고 나니 또 새 식구를 맞아들이게 됐다. 두번째 해 이후로 새로 맞은 식구들은 또다른 자부심에 불타오르는 새로운 의욕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름아닌 신입교사 공개채용. 어느 학교에서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건이리라. 서류전형, 면접, 공개수업을 거쳐서 심하게는 수십대 일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한 식구가 되신 선생님들의 자부심, 의욕은 대단한 것이었다.

교무실은 첫해와는 다른 박진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식구가 늘어나면서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미리 자리잡고 3층, 4층에서 썰렁하게 주인을 기다리던 빈 교실들도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매일 마주하던 얼굴들을 대하는 빈도가 차츰 떨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지기만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너무 가슴 아파 할 일도 못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교사가 자칫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비교의 대상이 없이 본교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 볼 수 있어야겠다.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최고로 또는 최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리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나은,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슴 뿌듯한 자부심은 각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일 것이다. 나 하나 쫓아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 부터 하는 생각이 앞설 때, 인항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긍지를 갖고, 가슴을 활짝펴고, 대로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인항고등학교의 앞날은 분명히 밝아지리라.